

시론



탁인석 문학칼럼니스트

광주상생모델로서의 GGM

GGM은 광주글로벌모터스 약자인데 '광주형 일자리'로 잘 알려져 있고, 언제부터가 우리 시민들에게 어느덧 익숙한 이름이 됐다. GGM이 설립 당시 언론에서는 대한민국 제1호 상생형 일자리로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설립 배경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제조업계의 고질적 대입인 노사관계를 협력관계로 전환하고자 한 것이 그 핵심 내용이다. GGM은 대기업에 비해 비교적 낮은 임금으로 고용하고, 그에 따른 임금 격차는 광주시가 주거, 교통, 교육 등 복지 지원을 통해 이른바 사회적 임금을 보완하는 형태였다. 일자리가 항상 막대한 광주의 입장에서 청년 또는 시민들에게 대단히 신선한 제안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리고 노·사·민·정 대타협이라는 이름으로 무파업을 혁신의 골자로 하는 '노사상생발전협정'을 체결했다. 조건은 누적 생산 목표 대수 35만 대 달성 시까지 상생 차원에서 근무 조건을 협의해 가기로 명시했다. 한마디로 대기업에서 퇴출이하는 노조 활동을 하지 말고 목표를 이룰 때까지 광주형 일자리로 만들어가자는 협약인 것이다. 그럼에도 노조는 만들어졌고 사측과의 견제차로 빈번한 내부

갈등이 노출돼 시민과 언론들의 우려와 격정이 대단한 실정이다.

필자가 생각건대 노조 복지를 앞세우다가 회사를 달아 버리면 소중한 직장이 없어질 수도 있다. 이른바 근본이 없어지는 게 아닌가. 노사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면 우리도 오싹한 느낌이다. 채권은행에서 노조 파업이 길어지면 상황을 전제해 운영자금이 불안하고, 사측 또한 선제적으로 다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GGM은 2019년 박경태 전 광주시장이 1대 사장으로서 독심을 보이며 '캐스퍼' 소형차 생산에 돌입했다. 그야말로 야심 찬 광주형 일자리의 출발이었던 것이다. 2024년에는 이 지역 출신 전문경영인 윤몽현 사장의 주도로 전 기차 캐스퍼를 생산해 유럽에서 히트 상품이 됐고, 영국과 미국에서 우수기업 표창을 받았다. 이 힘든 판에 전기차 라인이 개발되지 않았더라면 GGM의 운명은 어찌 됐을까. 지금 고용인원은 700여 명이며, 연차적으로 2천명까지 목표하고 있다. 올해 최근 공개채용에 341을 기록하고 있다. 2022년에는 흑자전환에 성공했으며 2023년과 24년에는 1천억 이상 매출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나오는 빠른 이익금으로 이차, 세금, 설비비용, 부채 부담 등에 대응하느라 엄청난 상황이다. 어쨌든 광주에서 GGM은 양견기업이고, 지역이 주목하는 희망이다. 노조에서 채권상태를 트집잡아 경영진을 고발하기도 했다. GGM이 라인 증설 하나 더 하려다가 노사 불안을 이유로 울산으로 가버렸다고 한다. 노조 파업시간에 그 자리를 일반직이 대체해 가동을 지켜왔

어도 생산은 차질이 없었다. 그리고 지금 노동자의 자리에 AI로봇이 대체하는 세상이 오고 있는데 사람이 근무하는 직장이 소중한 걸 아시라. 노조여, 부디 35만 대 생산까지는 참고 또 참아주시라. 지역민들이 한결같이 바라는 마음이 이것일 것이다.

이쯤에서 GGM에게 꿀팁 하나를 드리겠다. GGM은 광주를 기반으로 하고 지역민들의 기금으로 만든 기업이다. 이제는 전남광주특별시로 확대돼 운동장이 넓어졌다. 경영 전략 변화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만큼 시민들의 기대에 어떻게 하면 부응할까를 고민해야 한다. 광주전남은 문화중심도시이고 예술의 전통을 중시하고 있다. 문명의 장양과 응성이 첫 번째이면서, 그에 못지않게 병행해야 할 덕목이 바로 문화이다. 여기에는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다. 문화응성은 가까운 것이나 쉬운 것부터 접근하는 것이 순서다. GGM에서 GGM 문학상·음악상·미술상·문화공로상 등 문화 분야의 상을 반드시 제정했으면 한다. 여기에는 그다지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일도 아니다. 그러면서도 긍정 효과는 막대할 것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장벽을 허무는 것은 문화의 힘이 가장 으뜸이다. GGM과 시민이 가까워지면 그에 대한 응원이 함께 할 것이다. '노와 사' 간에도 장벽이 낮아지면서 그에 대한 효과는 간접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지금 세계는 K-컬처가 최고조이고, 광주전남은 문화가 밥그릇이 되는 도시이다. 강조하지만 문화의 힘이 세상을 상상시키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GGM에서 출발했으면 한다.

社說

부정수급 '발등의 불'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어찌할까

인구 소멸위기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 도입한 기본소득 시범 사업의 부작용이 대두되고 있다. 신안·곡성군에서 이례적으로 전입 신고가 증가하는 모습이다. 부정수급 차단을 위한 검증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전남도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20일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지로 선정된 신안의 주민등록인구는 9월 3만8천883명에서 올해 1월 기준 4만1천880명으로 7.6%나 급증했다. 12월3일 추가 선정된 곡성도 지난해 9월 2만6천597명에서 올 1월 2만7천426명으로 3.1% 늘었다. 앞서 2024년 9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신안의 경우 3만8천133명에서 3만8천221명으로 0.1% 증가에 그쳤고, 곡성은 같은 기간 2만6천638명에서 2만6천548명으로 0.3% 감소한 것과 뚜렷히 대비된다.

전남도는 물론 신안·곡성군도 발등의 불이다. 동장·이장단 등으로 읍·면위원회 구성해 실제 거주 여부를 파악하면서 군정에 신고센터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신규 전입자에 대해 기본소득 신청 때부터 3개월 동안 매달 실거주 여부 점검을 골자로 한 관련 지침을 내렸다.

지난 주 전국 10개 군 지역에서 15만원의 기본소득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됐다. 인구가 줄어서 발생하는 문제에 더해 역대 소비가 사라져 가게가 폐업해 더 많은 주민이 떠나는 구조를 끊고 지역경제의 회복을 이끌어내는 첫걸음이 다. 농림부는 동네에 가게가 생겨나도록 생활권 역별로 사용처를 제한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통해 다시 활력을 찾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결국 불법행위가 개입될 여지를 사전에 적극적으로 차단해야 할 것이다. 그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켜야 하겠다.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수급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막아내느냐가 성패를 결정짓는 전망이다. 정부는 시범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정책을 정교하게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국도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사람이 머무는 농어촌을 만들어 소멸 위기에서 탈출하도록 돕는 의미있는 실험이다. 공동체 유지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가 돼야 한다. 현장에 답이 있다. 다양한 의견을 듣는 한편 철저 대응해야 한다. 기본소득이 한 치라도 부당하게 쓰이지 않게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도심 화물차 밤샘주차 쉽게 근절되지 않는 사정

광주 도심 화물차 밤샘주차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23년 1천355건, 2024년 1천346건, 2025년 1천279건 등 해마다 1천300건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단속 집중지역을 피해가는 '풍선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자치구별로 들쭉날쭉한 실적이 이를 반증한다. 지난 주말 밤 본보가 동행 취재한 북구 문흥동 '백문동 숲길' 일원에서는 15대가 적발 대상으로 확정됐다. 전면 유리에 안내문을 부착한 이후 1시간 뒤 이동이 없는 경우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서울·경기·전남 등 다른 지역에 차고지를 둔 차량도 다수였고 버스 2대, 리무진 1대도 포함됐다. 차고지가 타지에 등록된 경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과징금 부과를 요청한다.

비단 한두대의 얘기가 아니다. 단속을 해봐야 잠깐 그 뿐이고 며칠 뒤에는 다시 도로를 점거하기 일쑤다. 뚜렷한 효과가 없다 보니,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무엇보다 시민들은 통행 불편은 물론이고 교통사고의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 주택밀집지, 골목길, 산책로 주변 등에서 매일같이 대형차의 밤샘주

차로 인해 상당한 곤욕을 치르고 있다. 반복적으로, 또 장시간 점유에 정주 환경을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전용 주차공간 확충 등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불법행위 근절은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구조적인 한계를 자치구도 호소하고, 운전자들 사이에서도 불만소리가 터진다. 전용 차고지가 있다고 해도 대부분이 외곽에 위치해 출퇴근 등에 부적합한 사정을 토로한다. 이처럼 도심 내 인프라 부족을 꼽고 있지만 막대한 예산도 투입돼야 하고 민원 발생 우려까지 배제못해 지자체는 난감한 상황이다. 공영 주차장이 외면받지 않도록 알맞은 입지를 더 고민해야 하고, 홍보활동 역시 더 강화돼야 한다. 대체로 접근성이 높고 소규모로 분산 조성하는 방안도 차체에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력 탓만 할 게 아니다.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해야 한다. 차주들의 의식 개선도 뒤따라야 한다. 시민의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하고 있다. 화물차의 밤샘주차를 막기 위한 실효적 해법이 시급하다.

기고



서정열 (사)남도문화연구소 이사장 대한민국의정회 명예회장

'K는 의(義)'...한국 문화의 정신적 뿌리

BTS의 2026년 아리랑 37개국 순회공연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멕시코 대통령이 자국 청년들의 티켓 확보를 위해 한국 대통령에게 공식 협조 서신을 보낼 정도로 K-컬처는 이제 국가 간 외교의 핵심이 됐다. K-팝에서 시작된 한류는 드라마, 푸드, 뷰티를 넘어 방송, 패션, 원전까지 산업 전반을 관통하며 세계를 사로잡고 있다.

경제 규모 13위, 인구 5천만만의 작은 나라 한국이 어떻게 세계를 호령하는 강자가 됐을까? 하버드대 마크 피터슨 교수는 명쾌하게 답한다. "K는 '의(義)'다."

한국은 1천번이 넘는 외침을 겪으며 고난의 역사를 살아왔다. 임진왜란 당시 7년 전쟁으로 인구가 1천600만에서 800만으로 급감하는 참혹한 비극도 경험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승리의 순간에도 복수보다 절제를 택한 것이다. 이순신 장군은 노량해전에서 왜군의 퇴로를 열어줬고, 전쟁 후에도 조선은 일본을 채찍하지 않았다. 이는 나라를 지키고 인간의 도리를 다하려는 '의로움'이 깊이 서린 결과였다.

이러한 정신은 유교의 인의예지 중에서도 특히 '의(義)'를 중시하는 한국적 전통에서 비롯됐다. 의로움은 단순히 옳고 그름을 가

리는 것을 넘어 약자를 보호하고, 불의에 맞서며,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는 정신을 의미한다. 이것이 바로 한국인의 DNA에 각인된 의로운 저항정신의 뿌리다.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필 벅은 1960년대 한국을 방문해 인상 깊은 장면을 목격했다. 농부가 무거운 짐을 소에게 지우지 않고 직접 메고 가는 이유를 묻자 "종일 밭갈이하느라 고생했는데, 소도 쉬어야지요"라는 답변을 들었다. 이 소박한 한마디 속에 한국인의 정신세계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말 못하는 짐승에게까지 미치는 이 따뜻한 배려가 바로 '의'의 발현이다. 맹자가 말한 측은지심이 일상의 가장 작은 행동에까지 스며든 것이다.

이러한 측은지심은 충무공 이순신의 백의종군 정신으로 이어졌고, 이를 없는 민초들의 손을 빌려 거북선의 불기둥으로 뿔여져 나왔다. 나라가 위태로울 때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전장에 나선 의병들, 일제강점기에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들, 6·25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서로를 돌본 피난민들의 이야기는 모두 이 '의로운 마음'의 연장선상에 있다.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K-현상은 단순한 경제적 성공이 아니다. BTS의 노래는 단순한 팝송이 아니다. '자신을 사랑하라', '당신의 목소리를 내라'는 메시지는 억압받는 전 세계 청년들에게 용기를 주는 외침이었다. 오징어 게임, 기생충, 미나리 같은 한국 영화들이 세계적 찬사를 받은 이유는 화려한 CG 때문이 아니라, 불평등과 차별에 맞서는 약자의 저항을 진정성 있게 그려냈기 때문이다.

2016-2017년 촛불혁명은 이러한 의민정신의 극적인 발현이었다. 권력의 부당한 압제 앞에서도 응원봉 하나를 죽장 삼아 맨몸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1천700만 명의 시민들. 그들은 단 한 건의 폭력 사태 없이 질서 정연하게 평화 시위를 이끌어 냈다. 이 놀라운 광경은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이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다"라는 찬사를 받았다.

코로나19 팬데믹 때도 마찬가지였다. 한국은 봉쇄 없이도 높은 시민의식으로 방역에 성공했고, K-방역은 전 세계의 모범 사례가 됐다. 이는 단순한 행정력의 승리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개인의 불편을 감수하는 집단적 의로움의 승리였다.

21세기 AI 시대, K가 제시하는 '의'의 정신은 새로운 해법이 될 수 있다. 삼성, LG, 현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면서도 ESG 경영과 상생협력을 강조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는 이윤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번영을 도모하려는 의로운 기업정신의 발로다.

토스, 당근마켓 같은 유니콘 기업들도 단순한 돈을 버는 것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주력한다. 당근마켓은 지역공동체를 연결하고, 토스는 금융 소외계층에게 기회를 제공한다. 이런 비즈니스 모델의 밑바탕에 '널리 이롭게 한다'는 흥익인간의 정신이 흐르고 있다.

K는 곧 의(義)다. 그것은 고난 속에서도 절제를 택한 민족의 지혜이고,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이며, 불의에 맞서는 용기이고,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는 고귀한 정신이다. 이 의로움이 BTS의 노래로, 봉준호의 영화로, 손흥민의 플레이로, 그리고 평범한 한국인들의 일상으로 세계에 전해지고 있다. K의 의로움이 세계를 치유하고 있다.

독자투고

경비경찰의 임무는 집회·행사 등에서 치안유지와 공공안전 확보를 담당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최근 경비경찰은 범죄 예방과 재난·인파 관리 등 민생치안 중심으로 전환했다. 출퇴근길 교통사고 예방근무와 생활권 범죄예방 방법순찰 등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묵묵히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사명이다.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순간들이지만, 이러한 작은 노력들이 모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내고 있다. 또한 주택가와 상가 밀집지역, 학교주변 등 범죄 위

경비경찰은 오늘도 시민의 일상 곁에...

악지역을 중심으로 방법순찰을 강화해 각종 범죄를 사전 억제하고 주민들이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힘쓰고 있다.

경비경찰은 단순한 순찰이 아닌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위험 요소를 먼저 발견 및 조치하는 '선제적 치안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때로는 말 한마디의 안내와 눈인사, 작은 배려가 시민에게 큰 안심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경비경

찰은 변화하는 치안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시민의 일상 가장 가까운 곳에서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

눈에 띄지 않아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 시민이 안전한 하루를 보내는 것, 그것이 경비경찰이 존재하는 이유이자 가장 큰 보람이기 때문이다. 오늘도 경비경찰은 시민을 위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최유성 광주경찰청 제271동대 3제대〉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이야기·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픽 뉴스

원/달러 환율 추이
주간 거래 증가 기준, 단위: 원(달러당)

날짜	환율 (원/달러)
1월 2일	1,441.8
1월 20일	1,478.1
1월 28일	1,422.5
2월 6일	1,469.5
2월 26일	1,425.8
2월 27일	1,439.7
3월 3일	1,466.1

전 거래일 대비 26.4원 상승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중동 정세 불안정해진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26원 넘게 올라 1,400원대 중반으로 올라섰다. 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증가는 전 거래일보다 6.4원 오른 1,466.1원이었다.

원/달러 환율 주간 거래 증가는 지난달 6일(1,403.5원) 이후 약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상승 폭은 미국 관세 충격이 있던 작년 4월 7일(83.7원) 이후 약 1개월 만에 최대였다. 환율은 226원 오른 1,462.3원에서 출발해 한 때 1,467.8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주간 거래 중 저기는 1,450.1원이었다. 지정학적 리스크로 불확실성이 커지며 안전 자산 선호 심리가 커졌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 대량 매도에 나섰고 주가가 급락해 코스피가 5,800선 아래로 밀렸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약 5조3천억 원어치를 순매도했고 코스피는 452.2포인트(7.24%) 떨어진 5,791.91에 장을 마쳤다. 2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장보다 4.21달러(6.28%) 치솟은 배럴당 71.23달러에 거래돼 시장의 우려를 키웠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부회장 馬讚皓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1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편집지원국 650-2011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 V 본부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입문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202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